



제28회 광주연극제

지난해 광주연극제 최우수상 수상작인 극단 열·아리의 '우렁각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체험!미디어 누리'로 단장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가 센터 1층에 마련된 뉴미디어체험관을 '체험! 미디어 누리'란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옛 미디어체험관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미디어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7만여 명이 찾았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 들어 기존에 일 2회(오전 10시~오후 2시)였던 체험 횟수를 일 3회(오후 4시 추가)로 확대하고, 전담강사제를 도입해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험!미디어 누리'는 크로마키(블루스크린) 등 방송기법을 영상으로 체험하는 '파랑 놀이터' 음성 녹음과 라디오의 원리 등을 배워 볼 수 있는 '빨팔라 놀이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배워보는 '스마트 놀이터'로 구성됐다. 올해는 미디어 분야에 꿈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 PD, 아나운서, 카메라 맨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도 벌인다.

이 밖에 2014년 봄 학기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라디오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처음 배우는 라디오'의 참가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62-650-0337.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문화이모작'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선정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역 문화인력 양성사업인 '문화이모작 공모사업'에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이모작'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터전에 다시 한번 문화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4월부터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예비 문화 활동가, 지역주민, 귀촌·귀농 희망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은 지역문화 및 문화자원의 개념부터 문화콘텐츠 개발기법과 문화마케팅, 문화활동가의 역할과 실천방안, 문화자원 조사법과 아이디어 발상법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기획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돼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1-280-58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뜨거운 '연극열전' 관객은 즐겁다

지역 연극계가 기지개를 켜다. 광주연극제를 통해서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이번 경연에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 모두 5개 극단이 참여한다. 12~14일, 17~18일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 최우수상을 받은 팀은 오는 6월14일~7월3일까지 열리는 제32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523-7292.

제 28회 광주연극제

날짜	극단	작품	연출
12일(수)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얼음꽃 피는 날	이행원
13일(목)	극단 사람사이	바퀴자국	송정우
14일(금)	극단 유포씨어터	강림, 저승가다	김하정
17일(월)	끼치놀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심성일
18일(화)	열·아리	발톱을 깎아도	안정인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얼음꽃 피는 날'
195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끈끈한 가족애를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폐병을 앓게 된다. 선영은 남동생 학업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다닌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고된 생활을 하던 선영은 공장 사장 아들 동호와 사랑에 빠지고 선영의 보살핌을 받은 명수는 중학교 교사가 된다. 정은주씨의 희곡을 극단 대표 이행원씨가 연출했다.

▲극단 사람사이 '바퀴자국'
이종사촌 기간인 영수와 윤희는 광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오빠 영호에게 쌀과 김치를 전해 주러간 아빠와 엄마를 기다리다 탈영한 군인을 만나다. 아빠와 엄마는 광주에서 죽은 영호를 리어카에 싣고 집으로 오는 길에 윤희와 영수가 군인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군인과 서로의 입장 차를 이야기하다 우발적으로 총을 쏘게 된다. 주혁준 극본, 송정우 연출.

▲극단 유포씨어터 '강림, 저승가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한 여자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혼수상태에서 죽은 이들과도 친구가 된다. 그들은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고, 당사자인 그녀도 자신의 생각이 혼란스럽다. 그녀는 죽어볼까도 하고 살아볼까도 했지만 죽음은 자기 뜻대로 될 수 없는 문제다. 유지혜씨 극본으로 연출은 김하정씨.

▲열·아리 '발톱을 깎아도'
위암 수술을 두번이나 받은 순애는 각종 병을 달고 살고, 대우는 병치레를 하는 순애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다. 설상가상으로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지만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박수자씨가 대본을 썼으며 양정인씨가 연출을 맡았다.

▲끼치놀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구전으로 전해왔던 '부용산'의 시인 박기동 선생과 작곡가 안성현 선생의 삶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1940년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에 걸친 한 예술가의 삶과 과란만장한 한국 근대사가 어우러지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국연극제에서 여러차례 희곡상을 받았던 김창일씨가 극본을 썼으며 심성일씨가 연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간 **예향**

3월호



'뜨는 전라도 사투리속으로'

광주 새 야구장의 모든 것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예향' 3월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3월호(통권 221호)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전라도 사투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집 '뜨는 전라도 사투리속으로'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사유, 무한한 창조 에너지가 깃든 사투리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사투리가 더 이상 보조역할에 그치지 않고 영화,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의 주요 장치로 활용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

기획 '신남도문화여지도'는 화평하고 순한 고장 화순을 찾아 유서 깊은 역사와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나는 문화의 향기, 남도의 맛을 오롯이 담아왔다.

또 다른 기획에서는 8일 개장식을 갖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을 둘러보고 관람하기 좋은 명당,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소개했다. 특히 개장을 앞두고 불을 밝힌 경기장의 화려하고 웅장한 야경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를 만나 그의 건축 인생과 철학을 들었다. 오는 10월 문화전당 완공을 앞둔 그의 감회와 더불어 9년 동안 미국과 광주를 오가면서 현장을 지킨 그만의 열정을 들을 수 있다.

마주앉은 책과 삶에서는 출간 20년을 맞는 '미학오디세이' 작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만나 미학의 길로 이끌었던 책 이야기, 작금의 근황 등을 들었다.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는 블루칩 작가 서정민씨의 작품 세계를 만난다. 장흥 출신으로 올해 해의 초대전 3개와 무려 10개 아트페어 출품을 예약해둔 그녀의 창작 열정과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에서 다시 무등으로' 무등현대미술관 4월10일까지 '김치준 너덜경을 빛다' 전

'너덜경으로 서민들의 삶을 빛다.'

무등현대미술관이 무등산국립공원지정 1주년(3월 4일)을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도예가 김치준씨를 초대해 '무등에서 다시 무등으로-도예가 김치준 너덜경을 빛다'전을 연다.

김씨는 흙을 사랑하는 작가다. 무등산 자락에 공방을 만들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흙에 대한 사랑은 때론 향아리로, 때로는 백토물 옷을 입은 도자기 등 작품으로 승화된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그의 인생관이라고 한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등산이다. 그중에서도 무등산 너덜경이다.

너덜경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면을 뜻하는

말로, 무수히 많은 바위들의 집단 군락을 가리킨다. 대부분은 '무등산'이라고 하면 서석대와 입석대를 떠올리지만 너덜경도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며 등산객들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있다.

작가는 이 너덜경에서 서민들의 삶을 봤다. 하나의 불품없는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뒤엉켜 만들어내는 장관이 우리네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다.

김씨가 만들어내는 작품들도 너덜경과 닮았고,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 향아리와 도자기들이 뒤엉켜 하나의 작은 무등산 너덜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무등에 오르다'전에서 관람객들에게 차를 대접하던 작가의 모습이 떠오른다. 문의 062-223-667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치준 작 '너덜경'

이태리 가구 전문점

SINCE 1989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